

# 단재 신채호의 아나키스트 활동과 일본 유적지

박걸순\*

- 
- I. 머리말
  - II. 아나키즘의 수용
  - III. 외국 우편 위체 위조사건의 주도
    - 1. 植民地·半植民地 동방피압박민족연대론의 주장
    - 2. 외국 우편 위체 위조계획과 실천
  - IV. 일본 유적지 조사
    - 1. 임병문 피체지, 일본은행 고베지점
    - 2. 신채호의 승선지 門司港과 승선함 恒春丸
  - V. 맺음말
- 

## I. 머리말

단재 신채호는 1910년 망명 이후 1936년 뤼순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1917년 단 한차례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26년간 줄곧 해외 망명생활을 하였다. 그의 활동 지역은 연해주와 중국이었는데, 중국에서는 칭다오·서간도·상하이·베이징·톈진 등지에서 활동하였고, 피

---

\*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체 이후 다롄과 뤼순에서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3년경 아나키스트로 전환한 단재는 東方被壓迫民族連帶論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1926년 여름경부터 아나키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7년 9월에는 북경에서 조선과 중국 등 7개국 대표가 모여 無政府主義者東方聯盟을 결성할 때 조선 대표로서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 회의의 결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1928년 4월, 천진에서 한인 아나키스트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그가 기초한 「宣言」이 채택되었고, 연맹의 선전 기관을 설치할 것과, 러시아와 독일의 폭탄 제조 기술자를 고빙하여 북경 교외에 폭탄 제조공장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는 이를 실현할 자금 조달을 위해 타이베이인 아나키스트 林炳文과 협의, 외국 우편 위체를 위조하여 현금으로 찾으려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다.<sup>1)</sup>

단재가 일본에 간 것은 1928년 5월 초의 일로, 타이베이 지룽항(基隆港)에 가서 위조 위체를 현금으로 찾기 위해 일시 경유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단재의 일본 활동과 유적지는 전혀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일본에서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단지 경유지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타이베이로 가기 위해 승선한 모지항(門司港), 모지항에서 승선한 고순마루(恒春丸), 임병문이 환금을 위해 활동하다가 피체된 일본은행 고베지점 등은 단재 활동의 한 과정으로서 조사하고 고증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단재의 중국과 타이베이 일원의 활동과 관련 유적지는 어느 정도 밝혀졌다.<sup>2)</sup> 그러나 아직 단재의 연해주나 일본 지역의 활동상과 유적지는 정리되지 못하였다. 본고는 필자가 단재예술제전위원회의 위탁을

1) 박결순, 2011, 「申采浩의 아나키즘 수용과 東方被壓迫民族連帶論」,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3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15~228쪽.

2) 단재문화예술제전추진위원회는 2013년 11월 11일 충북대학교에서 한·중 단재학술심포지엄 「단재 신채호의 해외 독립운동과 유적지 현황 I」을 개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최옥산이 「단재 신채호의 북경지역 독립운동과 유적지 현황」을, 박결순이 「단재 신채호의 청도·상해·타이베이지역 독립운동과 유적지 현황」을 발표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단재의 활동상과 관련 유적지를 고증하였다.

받고 단체의 일본 활동과 유적지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sup>3)</sup> 먼저 단체의 일본 활동의 전제로서 그의 아나키즘 수용과 그 대표적 이자 마지막 활동이었던 외국 우편 위체 위조사건을 일별하고, 유적지 조사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다.

## II. 아나키즘의 수용

단체는 황성신문사에 재직하던 1905년경 일본인 아나키스트 幸徳秋水의 『長廣舌』을 읽으며 아나키즘에 관심을 지녔다. 그가 1913년 상해에서 활동할 때에는 劉師復의 논설을 탐독하였고, 그 과정에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이해할 정도로 아나키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갔다. 1920년대 북경에 있을 때는 김창숙과 함께 이회영의 숙소를 왕래하며 아나키즘 사상을 교류하였다. 그의 아나키즘 수용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크로포트킨의 저작과, 류자명과의 교류였다.

단체가 아나키즘을 수용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3·1운동이었다. 그는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중의 힘을 목도하며 역사 변혁의 주체로서 민중을 인식하게 되었고, 절대독립론과 민중직접혁명론을 지니며 그에 부합하는 사상으로서 아나키즘을 수용하였던 것이다. 그가 아나키즘을 처음 접한 것은 이른 시기였으나, 1923년 「朝鮮革命宣言」을 집필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고, 이해 가을 한국과 중국의 아나키스트들과 교류하며 스스로가 아나키스트임을 자처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나키스트로서 단체의 모습은 이후 발표한 논설과 문학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4)</sup>

신채호가 아나키스트가 된 것에 대해 당시 국내 언론은 “신채호씨가 졸연히 아나키즘 사상으로 전환된 것은 우리 내지에 있는 사람으로는 일종의 의심을 가질 만한 바”라고 하며 의아해하였다.<sup>5)</sup> 단체가

3) 일본지역 조사는 2014년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고베와 기타규슈의 모지향을 대상으로 하였다.

4) 단체의 아나키즘 수용과 그 사상에 대한 논의는 앞의 줄고 참조.

아나키스트가 된 것을 민족주의 독립운동으로부터의 이탈 현상으로 해석하며, 이를 ‘뺏밖의’, ‘이해하기 어려운’, ‘애석한 일’ 등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는 여전히 존재한다.<sup>6)</sup>

그러나 그의 아나키즘 수용에 대한 평가는 첫째, 민족주의의 틀 속에서 해석하려는 견해, 둘째,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을 상보적 관계로 보려는 견해, 셋째, 純然한 아나키스트로 보는 견해로 대립되어 있다.

첫째 견해는 단재의 자강론적 민족주의가 무정부주의적 민족주의 또는 민중적 민족주의로 전환한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공산주의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sup>7)</sup> 또한 그의 아나키즘 사상을 ‘국제적 열린 세계관에 그의 민족주의를 포용한 朝鮮主義’로 이해하기도 한다.<sup>8)</sup> 그의 아나키즘 사상 수용은 민족주의 이념 및 민족해방운동의 방법과 전술론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며,<sup>9)</sup> 따라서 그의 아나키스트 활동은 당연히 아나키즘적 민족주의운동, 즉 항일민족운동으로 해석된다.<sup>10)</sup> 또한 단재가 아나키즘을 수용한 것은 저항 민족주의의 변용이나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접합으로 해석하는 진전된 논의도 있다.<sup>11)</sup>

둘째 견해는 그의 민족주의와 아나키즘을 상호 배척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이해하고, 그의 감성적 민족주의라는 원색의 바탕 속에 아나키즘이란 이념적 내실이 성숙해 간 것으로 평가한다.<sup>12)</sup> 신채호가 아나키즘을 수용한 것은 그의 민족주의가 현실 조건의 변화에

---

5) 『朝鮮日報』 1928년 12월 28일자.

6) 愼鏞廈, 1984, 「申采浩의 無政府主義 獨立思想」, 한길사, 88쪽, 108쪽.

7) 申一澈, 1984, 『申采浩의 歷史思想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167~176쪽.

8) 申一澈, 1997, 「신채호의 민족주의적 세계관과 그 극복」, 『계간 사상』 33, 사회과학원, 261~262쪽.

9) 최홍규, 2005, 『신채호의 역사학과 민족운동』, 일지사, 166쪽.

10) 吳章煥, 1991, 「1920년대 在中國韓人無政府主義運動」, 『國史館論叢』 25, 국사편찬위원회, 71쪽.

11) 陳德奎, 1986, 「단재 신채호의 민중-민족주의의 인식」,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獨立運動』, 丹齋申采浩先殉國50周年追慕論叢,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400~406쪽.

12) 河岐洛, 1980, 「단재와 아나키즘」, 『丹齋 申采浩와 民族史觀』, 丹齋申采浩先生誕辰100周年紀念論叢,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371쪽.

대응하면서 그의 민족주의가 도달한 최고·최종의 발전 성숙 단계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up>13)</sup> 이 처럼 양자를 상보적 관계로 해석하는 견해도 사실상 민족주의적 입장을 강조하고자 하는 성향이 짙다.

셋째 견해는 단재의 아나키즘을 민족주의와 구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견해는 단재의 아나키즘을 독립운동 수단으로 보는 기존의 다수 견해를 편견이라고 배척하며, 이는 무강권·무전제·무착취·무특권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생명을 바친 혁명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sup>14)</sup> 또한 단재를 민족주의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을 반대하며 그를 아나키스트로 규정할 때 한국근대사상계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이란 주장도 있다.<sup>15)</sup>

이보다 더 파격적인 견해도 제시되었다. 즉, 단재가 아나키즘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그를 위하여 민족주의를 수단으로 한 것이라고 하며, 이를 ‘단재 방식’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제기된 것이다.<sup>16)</sup> 이는 단재가 민족주의를 위해 아나키즘을 수단으로 하였다는 기존의 통설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논리이다. 이 견해 또한 단재의 아나키즘 수용과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나, 단재가 민족주의를 수단으로 하여 아나키즘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여겨진다. 단재가 사상이나 주의를 민족문제 보다 우선하거나 상위가치로 여기지 않았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단재가 아나키스트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즉, 단재가 『浪客의 新年漫筆』에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나 아나키즘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나키즘 이론과 주위에 공명하여 이 글을 썼다고 보는 것은 확대 해석이란 것이다. 이 견해는 단재의 「선언문」과 「룡과 룡의 대격전」이 아나키즘에 의거하고 있는 것은 인정

13) 김성국, 1995, 「아나키스트 申采浩의 試論的 재인식」, 『아나키즘연구』 창간호, 자유사회운동연구회 참조.

14)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 1978, 『韓國아나키즘運動史』, 형설출판사, 312쪽.

15) 李浩龍, 2003, 「신채호의 아나키즘」, 『역사학보』 177, 역사학회, 100쪽.

16) 趙東杰, 2001, 「丹齋 申采浩의 삶과 遺訓」, 『韓國史學史學報』 3, 한국사학사학회, 196쪽.

하나, 철저한 아나키스트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단재가 舊態의 민족주의를 견지할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아나키즘과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sup>17)</sup>

그런데 지금까지 단재의 아나키즘 수용과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간과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단재의 자평이다. 물론 이회영이나 정화암, 김성숙 등 단재와 함께 아나키즘 운동을 벌였던 동지들의 회고를 통해 자신들이나 단재가 아나키즘을 수용한 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사고와 방책이 상통하였기 때문이란 사실이 입증되었다.<sup>18)</sup>

단재의 아나키즘 수용에 대한 자평은 더욱 명확하다. 단재는 「浪客의 新年漫筆」에서 아무리 훌륭한 道德과 主義라 하더라도 朝鮮을 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단재는 당시의 현실은 정반대로 도덕과 주의를 위하는 조선뿐이라고 개탄하며, 이를 ‘노예의 특색’이라 질타하였다.<sup>19)</sup> 곧 그 어떤 도덕과 주의라 하더라도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비슷한 시기에 쓴 「朝鮮의 志士」에서도 主義의 敎條主義에 빠져 조선의 특수한 상황을 망각하는 우리의 현실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물론 조선의 특수한 상황은 식민지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이 글에서 ‘多主義는 필경 無主義’라고 하면서도, 唯一 主義가 되는 것 보다 경우에 따라 ‘主義가 善變’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主義의 善變’이란 조선의 공자는 예수도 될 수 있고, 조선의 바쿠닌은 카이젤도 될 수 있고, 조선의 레닌은 원세개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楞嚴經을 예시하며 ‘龍王을 만나거든 龍王으로 現身하여 說法하며, 天大將軍을 만

17) 徐仲錫, 1997, 「申采浩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小考」, 『韓國民族運動史研究』,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723~742쪽.

18) 李乙奎, 1963, 『是也金宗鎭先生傳』, 한홍인쇄소, 42~44쪽 ; 이정식 면담/편집 해설 김학준, 2006,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민음사, 95쪽, 333~334쪽.

19) 신채호, 「浪客의 新年漫筆」(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2, 『단재신채호전집』 제6권(이하 『전집』으로 약칭),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583쪽).

나면 天大將軍으로 現身하여 說法해야 한다'고 하였고, 다윈의 말을 인용하며 '사막에 처한 자는 白의 保護色을 가지고 樹林에 처한 자는 靑의 보호색을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그가 주장한 '主義의 善變'은 '身은 變하되 法은 不變하고, 色은 變하되 骨은 不變'하는 것이었다. 한편 그는 안정목의 고사를 들며 조선의 지사들이 '消極的 道德'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의병으로 나서지 않은 전우가 취한 것과 같은 '소극적 도덕'은 능사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sup>20)</sup>

이 부분은 신채호의 아나키즘 수용과 활동에 관한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가 이 글을 쓴 것은 아나키스트로서 활동하던 시기였다. 그런 그가 敎條主義를 비판하고 '主義의 善變'을 강조한 것은 민족적 현실, 즉 독립운동의 조건과 상황에 맞도록 사상의 주체적 변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재가 변해도 될 것으로 말한 '身·色'은 아나키즘 사상과 운동이며, 불변해야 할 것으로 강조한 '法·骨'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독립정신과 운동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결국 단재의 아나키즘 수용과 활동은 자신이 조선의 크로프트킨이 되어 아나키즘을 조선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변용하여 수용한 '主義의 善變'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Ⅲ. 외국 우편 위체 위조사건의 주도

#### 1. 植民地·半植民地 동방피압박민족연대론의 주장

단재는 절대 독립론과 민중의 직접혁명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외연을 동방민족연대론으로 넓히고자 하였다. 그가 국제적 연대나 동방민족연대론을 구상한 것은 아나키즘 사상의 주체적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의 사상과 독립운동론에서 커다란 변화라 할 수 있다.

20) 신채호, 「朝鮮의 志士」, 『전집』 제7권, 641~642쪽.

1920년대 북경에서 활동하던 한인 아나키스트들은 국제연대를 모색하였다. 이회영은 아나키즘과 민족주의를 상보적 관계로 설정하고, 여러 민족과 사회가 하나의 자유연합국가를 만드는 대동 세계를 추구하였다. 류자명은 한·중 연대와 공동투쟁론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 反日 國際連帶論으로 발전시켰다. 이회영이나 류자명은 일본의 무산 민중이나 아나키스트까지 포함하는 국제연대를 추구하였다.<sup>21)</sup>

그런데 신채호의 동방민족연대론은 일본을 배제한 植民地·半植民地 동방피압박민족연대론이란 점에서 그들과 분명히 구별된다. 단재는 독립운동을 민족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有·無產으로 나누자는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즉, 일본의 무산자와 공동으로 반제투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는 일본의 무산자는 제국주의를 배경으로 조선의 유산자보다 호강한 생활을 누리며, 특히 조선에 이식한 일본의 무산자는 조선인의 생활을 威嚇하는 식민의 선봉에 불과한 존재라고 간파하였다. 즉, 그는 일본 민중과 무산자를 제국주의 그 자체와 동일시하며 연대의 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 오늘에 와서 主義를 부르고 강권을 반대하지만 其實은 정부가 민중으로 변할 뿐이며 집정대신이 일본 무산자로 변할 뿐이며 통감 伊藤博文 군사령관 長谷川이 片山潛 擧利彦으로 변할 뿐이니 변하는 자는 명사뿐이오 정신은 의구하다. ... 일본 무산자를 조선인으로 본다함은 強族에게 納諂하는 못난 비열이 아니면 종로 거지가 도승지를 불쌍하다는 지나친 仁厚가 될 뿐이다.”<sup>22)</sup>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재는 일본 정부가 민중으로, 집정대신이 무산자로, 통감과 군사령관이 무정부주의자로 변한 것이니 이름만 바뀐 것이요 정신은 이전과 똑같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가 아

21) 박걸순, 2013, 「1920년대 北京의 韓人 아나키즘운동과 義烈鬪爭」, 『東洋學』 5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20~122쪽.

22) 신채호, 「浪客의 新年漫筆」, 『진집』 제6권, 586쪽.

무리 동방민족연대를 주장하고 무산자동맹을 추구하였으나 일본인은 어떤 계층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연대할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그의 「宣言」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그는 여기에서 연대의 대상이 ‘세계 무산대중, 더욱 동방 각 식민지 민중’임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세계의 무산대중 가운데에서도 동방의 식민지 민중을 우리가 연대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고, 여기에 동방의 半植民地 무산민중까지 포함하였다.<sup>23)</sup> 요컨대 단체의 동방민족연대론은 일본을 완전히 배제한 植民地·半植民地 동방피압박민족연대론인 것이다.

## 2. 외국 우편 위체 위조계획과 실천

단체가 본격적으로 아나키스트 단체에 참여한 것은 1926년 여름경으로 보인다.<sup>24)</sup> 그는 1926년 여름, 임병문이 상하이에서 중국·일본·조선·인도 등지 아나키스트들의 국제 연대를 위한 준비회의를 열었을 때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이 같은 준비를 거쳐 1927년 9월 베이징에서 無政府主義者東方聯盟(일명 A東方聯盟, 이하 東方聯盟)이 결성되었다.<sup>25)</sup>

東方聯盟은 중국 광둥의 아나키스트 秦健의 발의로 조선·중국·일본·타이베이·베트남·인도·필리핀 등 7개국 대표 120여 명이 참가하여 결성한 국제단체였다. 단체는 이 회의에 임병문의 안내로 28세의 젊은 이필현(일명李志永 또는 李三永)<sup>26)</sup>과 함께 조선 대표로서 참가

23) 신채호, 「宣言」, 『전집』 제7권, 157~159쪽.

24) 그는 제4회 공판(1929. 10. 3.) 때 자신이 無政府主義者東方聯盟에 입회한 것이 ‘3년 전 여름’이라고 하여 1926년 여름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東亞日報』 1929년 10월 7일). 그런데 1926년 여름에는 無政府主義者東方聯盟의 준비회의가 열렸던 때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이 정확하다면 그는 결성 이전의 준비회의에 참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5) 東方聯盟이 결성된 장소에 대하여 텐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愼鏞度, 1991,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 한길사, 64쪽; 김명섭, 2006, 「한일 아나키스트들의 사상교류와 반제 연대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51쪽). 이는 1927년 9월의 베이징 회의와, 1928년 4월 단체가 별도로 개최한 친진 회의를 혼돈한 오류로 여겨진다(『朝鮮日報』 1928년 12월 28일자, 『東亞日報』 1929년 2월 12일자, 『中外日報』 1929년 4월 8일자).

하였다. 단재가 임병문과 이필현을 알게 된 것은 류자명의 소개에 의해서이다. 즉, 류자명은 본인이 직접 외국 우편 위체 위조계획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이 계획이 가능하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조성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류자명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 나는 1924년에 북경에서 타이베이 사람인 林炳文과 范本樑을 알게 되었으며 그들과 나는 무정부주의 동지로 되어 서로 친밀하게 지냈었다. 임병문은 그 때 북경우정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前門의 泉州會館에 기숙하고 있었다. 그 때 생활이 곤란하여 임병문의 관계로 나도 천주회관에서 한동안 임병문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단재 선생과 임병문과도 서로 친하게 되었던 것이다. 리지영은 그 때 서울에서 같이 북경으로 온 청년이었는데 나는 북경에서 그를 만나보았고 나를 통하여 단재 선생과 임병문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천진에서 활동하다가 ...”<sup>27)</sup>

이 회의에 참가한 각 국 대표들은 본부를 상해에 두기로 결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취하며 목적을 달성케 하자고 맹세하였다.<sup>28)</sup> 단재는 이 단체에 참가한 목적을 무정부주의로 동방의 既成 國體를 변혁하여 모든 민중이 다 같이 자유롭게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sup>29)</sup>

---

26) 李弼鉉은 1920년대 전반기 일본에서 박열과 함께 박살단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흑우회 잡지인 『現社會』를 발행하였으며 불령사 활동도 함께 한 젊은 아나키스트였다(김명섭, 2008,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 일본에서의 투쟁-』, 이학사, 94-137-141쪽). 그는 다렌지방법원에서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재판장에게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신채호와 이종원에 대한 판결이 과도하다며 따졌다(『中外日報』 1930년 4월 14일자).

27) 류자명, 1999,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79~180쪽.

28) 『朝鮮日報』 1928년 12월 28일자.

29) 『東亞日報』 1929년 10월 7일자.

1928년 3월 상하이에서 在中國朝鮮無政府共產主義者聯盟이 결성되었다. 이 단체의 결성 때 단체의 참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으나 현재로서 단정할 수는 없다.<sup>30)</sup> 단체는 1928년 4월 텐진에서 한인 아나키스트 회의를 소집하였다.<sup>31)</sup> 이는 전년도에 열린 東方聯盟 회의의 결정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 회의는 회원들을 성명이 아닌 번호로 호칭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어, 이 회의를 주관한 단체 자신도 누가 참석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sup>32)</sup>

이 회의에서는 연맹의 선전 기관을 설치할 것과, 러시아와 독일인 폭탄 제조 기술자를 고용하여 북경 교외에 폭탄 제조공장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선전기관에서 인쇄한 선전물은 세계 각국에 발송할 계획이었고, 제조한 폭탄은 동방연맹 가맹 국가에 보내 대관 암살과 대건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였다.<sup>33)</sup>

이 회의에서는 단체가 기초한 「宣言」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에는 단체의 아나키즘에 기초한 동방 식민지·반식민지 무산 민중의 연대혁명론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단체는 「宣言」에서 세계 무산민중으로부터 동방 식민지·반식민지 무산민중으로 연대의 대상을 좁히고, 이를 최대 다수의 민중 대 최소수의 야수적 강도라는 대결 구도로 설명하였다. 그는 당시 동방 무산 민중의 생존 상태가 야수적 강도에 의한 ‘死滅보다도 陰慘한 不生存의 生存’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정부를 ‘人

30) 이 단체와 신채호와의 관련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있다. 즉, 당시 이 단체의 창립을 주도할만한 인물이 단체 밖에 없었고, 이회영이 관계하였다는 회고 없으며, 이 단체가 테러적 직접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로 그가 창립을 주도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李浩龍, 2003, 앞 글, 89~90쪽). 반면, 이 단체의 기관지 『奪還』이 단체가 폐쇄된 이후인 1928년 6월 1일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단체의 글이 실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단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박환, 1988, 「1920년대 在中韓國人的 無政府主義運動과 「奪還」의 刊行」, 『韓國學報』 52, 108쪽).

31) 이 회의 개최 장소를 베이징으로 보는 견해(愼鏞廈, 1991, 앞 책, 65쪽)는 『朝鮮日報』(1928. 12. 28.) 보도에 근거한 것이나, 신채호의 공판 답변이나 유자명의 수기 등에 의하면 텐진으로 봄이 타당하다.

32) 『東亞日報』 1929년 10월 7일자.

33) 『朝鮮日報』 1928년 12월 28일자.

肉 分臟所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정치, 법률과 형법, 명분과 논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 이 괴동물들이 맨 처음에 교활하게 자유 평등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 민중을 쇠기여 지배자의 지위를 어더 가지고 그 약탈행위를 조직적으로 백주에 행하라는 소위 정치를 맨 들며 약탈의 소득을 분배하라는 곳 「人肉分臟所」인 소위 정부를 두며 그리고 영원 무궁히 그 지위를 누리라 하여 반대하라는 민중을 제재하는 소위 법률 형법 등 부어터진 조문을 제정하여 민중의 노예적 복종을 식히라는 소위 명분 논리 등 민동이 갖은 도덕률을 제정하였다. 동서 역사에 전하여 온 제왕, 성현이 이 강도나 야수를 옹호한 야수의 주구들이다. ...”<sup>34)</sup>

그리고 무산 민중이 생존하기 위해서 재래의 정치·법률·도덕·윤리와 기타 일절 문구를 부인하고, 군대·경찰·황실·정부·은행·회사와 기타 모든 세력을 파괴하자는 분노의 절규로써 혁명을 외쳤다. 그리고 무산 민중이 진정으로 해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소극적으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그들의 존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방 각 식민지·반식민지 무산 민중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일본 등 제국주의 야수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압박을 철저히 부인하고 파괴하는 혁명에 급속도로 전진하여야만 동방 민중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35)</sup>

단재는 망명 이전에 쓴 글에서 동·서양 혁명의 차이를 설명하고, 동양혁명사의 결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동양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은 서양과 마찬가지로 ‘暴君凶黨’의 학대에서 비롯된 것이나, 서양은 혁명의 결과 그들을 제거하여 ‘人權 國利’를 얻고, 동양은 제2의 폭군과 흉당이 나타나 인권 국리를 얻는데 실패하였다고 지적한 것이

34) 신채호, 「宣言」, 『전집』 제7권, 655쪽.

35) 신채호, 「宣言」, 『전집』 제7권, 656~657쪽.

다.<sup>36)</sup> 그가 『宣言』에서 동방 무산민중들이 철저한 부인과 파괴의 혁명으로 제국주의 야수를 제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이 같은 역사인식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체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동방연맹의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에 나섰다. 그는 동지인 임병문이 北京郵務管理局 외국 위체계에 근무하는 신분을 활용하여 외국 우편을 위조하여 주요 우편국으로 송부한 후 이를 현금으로 찾고자 하였다. 그는 임병문이 일본에서 피체되어 사실의 전모가 드러난 줄도 전혀 모르고 자신이 담당한 타이베이로 가는 배를 갈아타기 위해 일본 모지항으로 출발하였던 것이다.<sup>37)</sup>

이 사건은 당시 무정부주의동방연맹사건, 무정부주의 A동방연맹사건,<sup>38)</sup> 국제위체사건,<sup>39)</sup> 외국 우편 위체 위조사건<sup>40)</sup> 등으로 불렸고, '조선 아나키스트 비밀결사의 효시'로 평가되며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sup>41)</sup>

## IV. 일본 유적지 조사

### 1. 임병문 피체지, 일본은행 고베지점

신채호가 주도한 외국 우편 위체 위조사건과 관련한 일본 유적지는 신채호가 선편을 이용하여 도착하였다가 타이베이를 향해 떠난 福岡縣 北九州市 門司區 門司港과, 임병문이 기착한 兵庫縣 神戸市 神戸港 및 임병문이 위체를 현금으로 바꾸려다가 피체된 日本銀行 神戸支店이 있다.

36) 신채호, 「東洋革命史의 缺點」, 『전집』 제6권, 139쪽.

37) 『朝鮮日報』 1928년 12월 28일자.

38) 『東亞日報』 1929년 10월 7일자.

39) 『東亞日報』 1928년 7월 20일자.

40) 『臺灣日日新聞』 1928년 5월 12일자.

41) 『朝鮮日報』 1928년 12월 28일자.

단체는 동지들과 함께 지역을 분담하여 위체를 현금화하고자 하였는데, 자신은 타이베이를, 이필현은 일본을, 임병문은 관동주와 조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임병문이 4월 25일 大連銀行에서 華北物産公司 張同華라는 가명으로 위체 2천원을 찾아 북경의 이필현에게 보내고, 다시 일본 모지항을 거쳐 고베항에 도착하여 일본은행 고베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액면 2천원을 현금으로 찾으려다 발각되어 일경에 체포되며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sup>42)</sup>

임병문은 중국에서 모지항을 거쳐 고베항에 도착하였다. 고베항은 1868년에 개항하였고 현재 일본 3대 여객항으로 해운과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고베항은 1995년의 고베대지진으로 많이 파손되었고, 1997년 그 상흔을 그대로 간직한 ‘고베항 지진 메모리얼 파크’가 조성되었다. 고베항에 진입하는 와다곶(和田岬)에는 등대가 설치되어 있고 미쓰비시중공업 기지가 있는데, 이곳은 1932년 11월 18일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에서 일본으로 이송되며 하선한 곳이다.<sup>43)</sup> 현재의 고베항 구조와 시설은 1920년대와는 많이 변하였다. 그러나 일본 굴지의 화물과 여객항으로서의 위상은 여전하다.<sup>44)</sup>

일본은행 고베지점은 1927년 6월 1일 개설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고베는 일본 최대의 무역항이 되었고, 국제해운과 조선소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외국은행 지점의 대부분이 고베에 개설되어 외국 위체 취급의 중심지가 되었다. 일본은행 고베지점은 다른 은행의 지점

---

42) 『朝鮮日報』 1928년 12월 28일자. 당초 분담 지역과는 달리 임병문이 일본에 간 이유는 알 수 없다.

43) 윤봉길의사는 1932년 5월 25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다가, 11월 18일 일본 우편 수송선에 실려 상해를 출발하여 고베항을 거쳐 오사카 육군위수형무소로 이감되었다. 당시 윤의사는 고베항 밖에 있는 와다곶 선착장에서 하선하여 쾌속정 마야마루를 타고 미쓰비시 조선소 도크에 내려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 편으로 이날 오후 5시경 형무소에 도착하였다(김상기, 2010, 「윤봉길의 상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梅軒學報』 1,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연구원, 248쪽).

44) 고베항은 1950년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에 접수되었다가, 이듬해 접수가 해제되었으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일본에 환수된 것은 1974년의 일이다.

들이 신청으로부터 개설까지 보통 1~2년이 소요되었던 데 비해, 불과 4개월 만에 大藏大臣의 허가를 받아 개설되었다. 이는 당시 일본의 경제 환경이 상당히 심각하였기 때문에 내려진 특례적 조치였다. 지점의 개설 당시 직원은 27명이었는데, 모두 오사카지점에서 전근한 사람들이었다.

개설 당시의 일본은행 고베지점 건물은 현재의 고베시립박물관과 맞닿은 북측에 있었다. 이곳은 일찍이 외국인의 자치가 행해지던 거류지로서, 원래는 독일계 은행인 獨亞銀行이 매입해 둔 부지였으나, 1921년 일본은행이 매입하였다. 일본은행은 이곳에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설계도를 만들었으나, 1923년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내진과 내화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 변경을 하였다. 그런데 전시 중에 공습 목표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검은 콜타르를 칠했다가, 종전 후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몇 차례 콜타르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여 1950년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전후, 일본의 경제가 발전하여 지점의 업무량이 증대되고 직원 수가 증가하자, 1961년 바로 길 건너편에 지점 건물을 신축하여 옮겼다. 새 지점은 일본은행으로는 최초의 4층 건물이었고, 최초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으며, 인근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다.<sup>45)</sup>

고베시립박물관은 神戸市 中央區 京町 24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1982년에 개관하였다.<sup>46)</sup> 당초 박물관은 舊橫濱正金銀行 神戸支店으로 1935년 건축한 것인데, 1962년 고베시가 외관을 유지한 채 서측에 신관을 신축하고 박물관으로 개관한 것이다. 현재 박물관은 근대화산업유산으로 文化廳 등록유형문화재 제28-0026호로 지정되어 있다.

박물관의 북측으로 고층의 오리엔탈 호텔 건물이 연결해 있는데, 이곳이 일본은행 고베지점 구지로서 벽에 ‘神戸舊居留地 25番館’이라는 뜻말이 부착되어 있다. 이 호텔의 바로 길 건너 맞은 편 中央區 京町 81번지에 현재의 지점이 건축 당시 모습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45) 일본은행 홈페이지(<http://www3.boj.or.jp/kobe/annai/rekisi.html>).

46) 고베시립박물관홈페이지(<http://www.city.kobe.lg.jp/culture/culture/institution/museum/>).

고베는 중국과의 항로상 중점이었는데, 임병문은 이곳이 외국 위체 취급의 중심지임을 알고, 개설된 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은 일본은행 지점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병문의 피체를 전후한 상황은 자료의 결핍으로 알 수 없으며, 그의 다롄지방법원에서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해서도 별로 알려진 사실이 없다. 그러나 단재가 주도한 외국 우편 위체 위조사건이 실패로 귀결되어 독립운동의 꿈이 좌절된 단초가 된 임병문의 피체지인 일본은행 고베지점의 위치를 처음 확인한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2. 신채호의 승선지 門司港과 승선함 恒春丸

임병문이 피체된 사실을 모르던 신채호는 1928년 4월 25일 베이징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왔다. 단재의 일본행은 당시 여객 항로를 감안하면 텐진항을 이용하여 기타큐슈의 모지항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일본에서 타이베이를 연결하는 항로는 고베에서 세토(瀬戶) 內海를 통해 간몬해협을 지나 모지항을 경유하여 타이베이 지룽항(基隆港)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재는 중국 텐진을 출발하여 고베까지 가지 않고 중간 기착지인 모지항에서 하선하여 지룽항으로 갔을 것이다.

모지항은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으나, 1889년 석탄·쌀·보리·밀가루·유황 등 다섯 품목의 특별 수출항으로 지정되며 대외 무역항으로 발전해 나갔다. 1891년 모지항을 중심으로 철로가 가설되어 육해 항로의 규슈 관문이 되었고, 1898년에는 규슈에서 최초로 일본은행 지점이 생겼다. 1907년에는 제1종 중요 항만으로 선정되었고 간몬항(關門港, 門司·下關港)이 되었다. 1914년에는 모지역 역사가 신축되었고, 1919년에 모지항이 국영화되었다.

모지항은 고베, 요코하마와 함께 일본 3대항으로서 국제무역의 전진기지였을 뿐만 아니라, 화물과 여객이 동남아시아와 유럽 등 세계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후반, 모지항은 동남아와 유럽 항로 등 약 40항로(약 180편/월)가 취항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일본에 설치한 1만발의 기뢰 중 절반 이상을 간몬해협에 집중하였다고 하니, 모지항이 얼마나 중요한 관문인가를 알 수 있다.<sup>47)</sup>

모지항은 일본의 한국 침략 관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907년 7월 25일 기타규슈 고히라(小倉)에 본부를 둔 제12사단 소속 보병 제14연대 3개 대대 병력 1,291명이 모지항을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 각지에 분산하여 바로 대대적인 의병 탄압에 나섰던 것이다.<sup>48)</sup>

이곳에는 세관을 비롯하여 은행과 상사 등 근대 건축물들이 들어서 마치 영국 런던과 같다 하여 ‘잇초 런던(一丁倫敦: 런던거리)’이라 불려졌다. 현재에는 大正시대에 건축된 모지세관, 모지역, 浮橋, 미쓰이(三井)클럽 등이 잘 정비되어 일본 국토교통성이 선정한 도시경관 100선에 선정되었고, 대안의 시모노세키항과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되어 연간 관광객이 250만 명에 달한다.<sup>49)</sup>

현재의 모지항은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변해 있고, 항공의 발달로 국제 여객 교통 기능은 크게 쇠퇴한 실정이다. 모지항의 지형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는 곳은 여객터미널로 사용되던 ‘舊大連航路上屋’이다. 이 건물은 1929년 모지세관 1호 상옥으로 건축된 것인데 2층은 여객터미널로, 1층은 창고로 사용하였다. 당시 모지항을 기점으로 하는 많은 항로 가운데에서도 대련항로 여객 편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건물을 ‘대련항로 상옥’ 또는 ‘대련항로 대합실’이라 불렀다. 당시는 2층 대합실에서 바닷가 쪽으로 비스듬히 가설된 개폐식의 코리더(corridor, 회랑)를 이용하여 승선하였다. 여객터미널 건물과 정박한 여객선 사이에는 철로 두개가 가설되어 있었다. 현재 여객선이 계류했던 바닷가는 매립되어 도로가 개설되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배를 부두에 받들러 고정시켰던 웅장한 4개의 블라드(繫船柱)와 철로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규모와 모습을 알려준다.

‘舊大連航路上屋’은 당시 유행하던 아르데코(art deco)<sup>50)</sup> 디자인 방

47) 모지항 위키디피아(<http://ja.wikipedia.org/wiki/>).

48) LH토지주택박물관, 2010, 『陣中日誌』 I, LH토지주택박물관, 16~25쪽.

49) 모지항 레토르 위키디피아(<http://ja.wikipedia.org/wiki/>).

50) 아르데코 기법이란 1920~30년대에 파리에서 비롯되어 세계적으로 유행

식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당시 국제항구로서 모지항의 번영을 상징하는 근대 유산으로 평가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2013년 항만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휴게실, 대합실 등을 원래 모양대로 복원하고 선박과 항로 관련 전시실을 조성하였다.<sup>51)</sup>

단재는 1928년 5월 8일, 모지항에서 고순마루(恒春丸)에 승선하여 타이베이의 지룽항으로 향하였다. 고순마루는 貨客船으로 1927년 다카오마루(高雄丸)와 자매선으로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제작되었다. 이 배의 제작 이전에도 고순마루를 선명으로 사용한 선박이 있었으나, 동명일 뿐이다.<sup>52)</sup>

고순마루의 선주는 오사카상선(大阪商船)이고, 제원은 4,371t, 3,801마력, 長(L)X幅(B)X深(D)은 355.6X48.5X32.5이며 터빈 엔진을 장착하였다.<sup>53)</sup> 1920년대 후반, 당시 화주들은 이 배가 다른 배들보다 빨라 “새보다 빠르다”고 칭송하였는데, 시속 11.5노트이고 최대 속력은 16.51노트였다.<sup>54)</sup> 그러나 이 배는 1937년 가고시마현(鹿兒島) 가자섬(臥蛇島) 남단에서 암초에 부딪히는 해난사고로 침몰되었다.<sup>55)</sup>

단재는 모지항에서 고순마루에 승선하며 선객 명부에 ‘北京前門內安福 劉文祥 號 孟源’이라고 썼고, 명함도 그렇게 인쇄하여 지니고 있었다. 일제는 4월 23일 이후 臺北郵便局을 위시하여 新竹·基隆·臺中·

한 장식 미술의 한 양식으로 기하학적 무늬와 강렬한 색채가 특징이다. 이 건물은 당시 ‘관청 건축가’로 유명한 大藏省 營繕管理局 工務部長 大熊喜邦이 설계한 것인데, 그는 일본 국회의사당과 요코하마 세관도 설계하였다(北九州市 港灣空港局 설명 자료).

51) 이 건물은 1950년 미군이 접수하며 여객터미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는데, 1972년에 일본에 반환되어 2008년까지 모지세관의 가정사와 공공상옥으로 이용되었다.

52) 機密第234號, 「歩兵四中隊ノ輸送ニ關スル件」, 陸軍輸送本部長→陸軍次官報告, 1919년 6월 14일(アジア歴史資料센터). 이 보고는 韓國駐劄軍 參謀長의 청구에 의해 나남과 함흥에 주둔하던 보병 2개 중대 수송과 관련한 내용인데, 청진과 함흥에서 정기선 恒春丸에 탑재하여 원산으로 수송하였다고 되어 있다.

53) 上野喜一郎, 1957, 『船舶百年史』, 成山堂書店, 123쪽.

54) 야후저팬 인터넷박물관(<http://homepage2.nifty.com/i-museum/19411210takao/takao.htm>).

55) 야후저팬 恒春丸(<http://cache.yahooofs.jp/search/cache?>).

臺南·高雄 등 타이베이의 주요 우편국에 잇달아 위조된 외국 위체가 들어오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엄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터였다.<sup>56)</sup> 그런데 타이베이로 보내온 위조 위체의 수신인이 劉文祥과 劉孟源으로 되어 있던 터에, 동일한 이름이 선객 명부에서 확인되자, 일경이 지룽항에서부터 단재를 미행하였다. 이를 모르던 단재는 항구에서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지룽우편국으로 가서 위체계 창구에서 劉文祥 명의로 지급청구서에 서명 날인하고 현금을 수령하려고 기다리던 중 지룽수상과출소 與世山 형사에게 피체되었던 것이다.<sup>57)</sup>

## V. 맺음말

단재는 26년 동안 연해주와 중국, 대만 등지에서 활동하며 많은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온전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재판을 받고 순국한 다렌감옥과 휘순감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단재의 활동 무대와 공간을 추적하여 그 현장을 정확히 고증하는 일은 어렵고도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단재가 1928년 아나키스트 활동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계획한 외국 우편 위체 위조사건과 관련한 일본 유적지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사건은 그의 독립운동사의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사건이자, 대담하고 중대한 활동으로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다. 그 발단은 임병문이 일본은행 고베지점에서 위체를 현금으로 바꾸려다가 피체되며 비롯되었다.

이번의 일본 조사에서는 임병문과 신채호가 기착한 모지항과 고베항의 현황을 돌아보았다. 특히 임병문이 피체된 구일본은행 고베지점 현장을 고증하였고, 단재가 모지항에서 지룽항으로 가기 위해 승선한 고순마루를 조사한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였다.

56) 『臺灣日日申報』 1928년 5월 12일자. 이 신문은 中文과 日文으로 간행되었다.

57) 朴杰淳, 2011, 앞 글, 224~226쪽.

그런데 단재의 마지막 활동에 대한 중요한 자료는 끝내 확인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단재가 지롱항에서 피체 후 수상경찰서에서의 신문 조서, 일제의 위체 사건 수사 기록과 임병문 피체와 관련된 사실, 대만총독부의 위체 사건 수사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단재의 판결문조차 확인되지 않아 신문에 보도된 문답 내용을 통해 그 일단 이나마 알 수 있는 실정이다. 향후 단재의 재판 관련 기록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뿐만 아니라, 단재의 유고 등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미공개 자료의 발굴도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2008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가 『단재신채호전집』(전9권)을 간행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였다. 그러나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수록하지 못한 반쪽의 성과에 그치고 말았다.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이 소장하고 있는 단재의 저술은 53건 4,979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5백 쪽으로 구성해도 10책이 나 되는 분량이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주제들도 다수 있다.<sup>58)</sup>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북측에 정식으로 단재 자료의 공동 수집과 연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2018년에 맞이할 단재 서거 8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소장하고 있는 단재 자료의 수집과 자료집 간행이 결실을 이룬다면 단재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그 준비는 당장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

[논문접수: 2014. 10. 30, 심사시작: 2014. 11. 10, 심사완료: 2014. 11. 30]

주제어 : 단재, 신채호, 아나키스트, 임병문, 외국 우편위체 위조, 일본은행 고베지점, 모지항, 고베항, 고순마루

58) 박결순, 2008, 「『단재신채호전집』 간행의 의의와 과제」,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3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수록된 「신채호유고목록」 참조.



<사진1> 추방산(151m)에서 내려다 본 고베항 전경



<사진2> 간몬해협과 모지항 전경



<사진3> 舊일본은행 고베지점(좌)과 현재의 모습(우)



<사진4> 단재가 모지항에서 승선한 고순마루

【참고문헌】

- 『朝鮮日報』, 『東亞日報』, 『中外日報』, 『臺灣日日新聞』.  
機密第234號, 『歩兵四中隊ノ輸送ニ關スル件』.
- 단체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2002, 『단체신채호전집』, 단체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 류자명, 1999, 『한 혁명자의 회억록』,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야후저팬, 위키디피아, 고베시립박물관홈페이지, 일본은행 홈페이지.  
LH토지주택박물관, 2010, 『陣中日誌』 I, LH토지주택박물관.
- 김명섭, 2006, 「한·일아나키스트들의 사상교류와 반제 연대투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9.
- \_\_\_\_\_, 2008, 『한국 아나키스트들의 독립운동 -일본에서의 투쟁-』, 이학사.
- 김상기, 2010, 「윤봉길의 상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梅軒學報』 1,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연구원.
- 김성국, 1995, 「아나키스트 申采浩의 試論的 재인식」, 『아나키즘연구』 창간호, 자유사회운동연구회.
- 無政府主義運動史編纂委員會, 1978, 『韓國아나키즘運動史』, 형설출판사.
- 박결순, 2008, 「『단체신채호전집』 간행의 의의와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_\_\_\_\_, 2011, 「申采浩의 아나키즘 수용과 東方被壓迫民族連帶論」,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8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_\_\_\_\_, 2013, 「1920년대 北京의 韓人 아나키즘운동과 義烈鬪爭」, 『東洋學』 제54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박환, 1988, 「1920년대 在中韓國人の 無政府主義運動과 「奪還」의 刊行」, 『韓國學報』 제52집.
- 上野喜一郎, 1957, 『船舶百年史』, 成山堂書店.
- 徐仲錫, 1997, 「申采浩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小考」, 『韓國民族運動史研

- 究』, 于松趙東杰先生停年紀念論叢刊行委員會.
- 愼鏞廈, 1984, 「申采浩의 無政府主義 獨立思想」, 한길사.
- \_\_\_\_\_, 1991,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 한길사.
- 申一澈, 1984, 『申采浩의 歷史思想研究』, 高麗大學校 出版部.
- \_\_\_\_\_, 1997, 「신채호의 민족주의적 세계관과 그 극복」, 『계간 사상』 33, 사회과학원.
- 吳章煥, 1991, 「1920년대 在中國韓人無政府主義運動」, 『國史館論叢』 25, 국사편찬위원회.
- 李乙奎, 1963, 『是也金宗鎭先生傳』, 한흥인쇄소.
- 이정식 면담/편집 해설 김학준, 2006,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민음사.
- 李浩龍, 2003, 「신채호의 아나키즘」, 『역사학보』 177, 역사학회.
- 趙東杰, 2001, 「丹齋 申采浩의 삶과 遺訓」, 『韓國史學史學報』 3, 한국사학사학회.
- 陳德奎, 1986, 「단재 신채호의 민중·민족주의의 인식」, 『申采浩의 思想과 民族獨立運動』, 丹齋申采浩先殉國50周年追慕論叢,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 최홍규, 2005, 『신채호의 역사학과 민족운동』, 일지사.
- 河岐洛, 1980, 「丹齋와 아나키즘」, 『丹齋 申采浩와 民族史觀』, 丹齋申采浩先生誕辰100周年紀念論叢,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국문초록>

단재 신채호의 아나키스트 활동과 일본 유적지

신채호는 1910년 망명한 이래 26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 타이완 등지에서 활동하며 많은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온전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재판을 받고 순국한 다렌감옥과 튀순감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단재의 활동 무대와 공간을 추적하여 그 현장을 정확히 고증하는 일은 어렵고도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는 단재가 1928년 아나키스트 활동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계획한 외국 우편 위체 위조사건과 관련한 일본 유적지를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사건은 그의 독립운동사의 중지부를 찍는 중요한 사건이자, 대담하고 중대한 활동으로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었다. 그 발단은 임병문이 일본은행 고베지점에서 위체를 현금으로 바꾸려다가 피체되며 비롯되었다.

이번의 일본 조사에서는 임병문과 신채호가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기착한 모지항과 고베항의 현황을 돌아보았다. 이들 항구는 일부 변용은 있었으나 당시와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임병문이 피체된 舊일본은행 고베지점 현장을 정확히 고증하였고, 단재가 모지항에서 타이완 지룽항으로 가기 위해 승선한 고순마루의 사진을 확보하고, 제작과정과 제원, 좌초와 침몰 사실 등을 밝힌 것은 나름대로의 성과였다.

그런데 단재의 마지막 활동에 대한 중요한 자료는 끝내 확인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단재가 지룽항에서 피체 후 수상경찰서에서의 신문 조서, 일제의 위체 사건 수사 기록과 임병문 피체와 관련된 사실, 대민총독부의 위체 사건 수사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단재의 판결문조차 확인되지 않아 신문에 보도된 문답 내용을 통해 그 일단이나마 알 수 있는 실정이다. 향후 단재의 말기 활동을 밝힐 수 있는 문헌 기록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